



2012 한국광고주대회

국내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2012 한국광고주대회'가 지난 10월 18일 조선호텔 오키드룸&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특별 세미나'와 '광고주의 밤-KAA Awards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광고주의 밤'에서는 500여 명의 광고주가 한자리에 모여 '2012 광고주선언'을 발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합리적인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광고주들이 선행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Free Markets, Free Communication, Free Choice'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광고주를 비롯한 매체사, 광고대행사, 학계, 광고전문가,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편집실>

특별 세미나

2012 KAA 미디어 리서치, 미디어 시장 변화 분석 등 실용적 주제로 꾸며져

2012 한국광고주대회 '특별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 '2012 KAA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스마트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우리 국민의 뉴미디어 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했다. 발표는 조사를 수행한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신은희 대표와 최원석 이사가 맡았다.

제2주제 '2013년 미디어 시장 전망'에서는 김종필 이노션월드와이드 채널플래닝팀 수석국장이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내년도 미디어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제3주제 'Brand Evolution,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드는 Never Ending Story'에서는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가 약속,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창조하는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 ◀ 대회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 ▼ 참석자들을 환대하는 광고주협회 운영위원들



광고주의 밤

KAA Awards 시상식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광고주의 밤’에서는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주의 위상 제고와 국내 광고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KAA Awards 시상식’에서는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 좋은 모델상, 좋은 프로그램상, 좋은 신문기획상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KAA Awards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에는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은 광고주의 권익 보호와 광고의 자유 신장, 그리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인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양휘부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간 한국방송광고공사(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광고경기예측지수, 소비자행태조사 등 연구 조사를 통한 국내 광고시장 선진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광고교육원과 광고도서관 운영을 통한 광고교육사업에도



- ① 세미나 3주제 발표를 하는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 ② 특별 세미나 인사말을 전하는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
- ③ 1주제 발표를 하는 신은희 닐슨컴퍼니코리아 대표
- ④ 2주제 발표를 하는 김종필 이노션월드와이드 채널플래닝팀 수석 국장
- ⑤ 축사를 전하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⑥ 정상국 대회 집행위원장(LG 부사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힘쓰는 한편, 광고장학생 선발 및 장애인 초청 캠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국내 광고산업 발전과 함께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 고양에 일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에는 배우 유준상과 개그맨 신보라씨가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은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모델, 소비자 호응도와 친화력이 높으면서 프로정신이 투철한 모델, 광고 외적인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유준상씨는 드라마를 통해 얻은 국민남편 이미지로 하나SK카드, 하나은행, 롯데 꼬갈콘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여자부문 좋은 모델로 선정된 신보라씨 역시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는 동시에 LG유플러스, 해태제과, 동원F&B, 동아오츠카 등 개그맨 모델의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에는 MBC의 ‘해를 품은 달(드라마 부문)’과 SBS의 ‘정글의 법칙(연예오락 부문)’, 그



①

- ①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을 수상한 배우 유준상과 개그맨 신보라
- ③ 임대기 삼성 부사장이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을 수상한 정선구 중앙일보 산업부장에게 시상하고 있다.
- ④ 신문기획상을 수상한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부장
- ⑤ 박중현 동아일보 차장
- ⑥ 하영춘 한국경제신문 부장



②



③



④



⑤



⑥

리고 KBS의 '다큐3일(보도교양 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으면서 광고효과가 좋은 프로그램, 반기업 정서가 없고 기본 경제상식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에는 동아일보의 '일자리가 복지다 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시리즈와, 중앙일보의 '대한민국 경제허리 중견기업 힘들다' 시리즈, 매일경제신문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 시리즈,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중동은 지금 한국시대' 시리즈가 각각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은 독창적인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자유시장경제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반기업정서 개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사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2012 한국광고주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인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AA**



- ① 정상국 집행위원장(LG 부사장)이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이재혁 KBS PD에게 시상하고 있다.
- ②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김도훈 MBC PD
- ③ 이지원 SBS PD
- ④ 경품추첨을 하는 정광열 삼성전자 상무
- 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을 수상한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 ⑥ 건배 제의를 하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 ⑦⑧ 축하공연을 해준 에이핑크와 라니아





박정규 광고위원장 (동서식품 부사장)

2012 광고주선언

우리 광고주는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2 한국광고주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광고주는 사이버언론의 음해성 보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왜곡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반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 간다.
2. 우리 광고주는 인터넷 포털이 국민과 소비자에게 유익하고 진실된 정보 유통을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광고주는 매체력에 근거한 합리적인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기사를 빌미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사이버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광고 차별화를 통해 단호히 대응한다.
4. 우리 광고주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의 발전과 광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인터넷 매체 및 포털과 협력해 나간다.

2012년 10월 18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원 일동

